



인천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수신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경유)

제 목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1. 의회사무국-573(2025.1.20.)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 연구단체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1부. 끝.

의원 연구단체 서구 분리수거 정책 연구회

주무관 김은지

전문위원

대표위원
(이한중)

시행 서구분리수거정책연구회 - 3호 (2025. 11. 26.)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http://seo.incheon.kr](http://seo.incheon.kr)

전화 032-560-4693 / 전송 032-560-2797 /

서	구	분	리	수	거	정	책	연	구	회
서	구	분	리	수	거	정	책	연	구	회
서	구	분	리	수	거	정	책	연	구	회
서	구	분	리	수	거	정	책	연	구	회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I 의원연구단체 현황

- 연구단체명: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 활동기간: 2025. 3. 4.~11. 30.
- 구성의원: 총 4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고
1	대표의원	이한중	복지도시위원회	
2	의원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복지도시위원장
3	의원	유은희	환경경제안전위원회	
4	의원	송 이	복지도시위원회	

II 연구개요

- 연구주제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해 재활용 효율을 높이며, 동시에 종량제 폐기물의 감량을 도모함으로써 ‘수도권 쓰레기 대란 사태’에 대응
 - 서구의 이원화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정책의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도를 높이며, 혼합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연구

□ 연구목적

-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직매립 금지조치에 대응하며, 자원순환 우수 도시이자 탄소중립 도시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배경

-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배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종량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함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폐기물의 절대적인 양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분리수거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의 용량을 줄이는 여러 방안 중 오분리·혼합배출을 감소시켜 분리배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분리수거 정책을 연구할 필요성 증대
- 이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등 총 3가지로 분류됨. 서구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이 이원화되어있어 일부 지역은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만 일부 지역은 전용 수거용기와 필증을 통해 배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원도심의 경우, 악취, 불편함, 청결 문제 등으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 종량제 폐기물과 혼합배출 하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음식물류 폐기물이 올바르게 배출되지 않는 곳이 많은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연구내용

- 종량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 분리배출 정확도 제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 원도심의 청결 문제, 악취, 불편함 등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연구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분리 배출 실태 비교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정책의 전면 검토 및 혼합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연구

III

세부 연구활동

□ 실태 파악과 설문조사

○ 개요

- 일시 : 2025. 7. ~ 2025. 9.
- 장소 : 각 행정복지센터
- 내용 :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태와 개선방안 설문조사
- 범위 : 관내 구도심 7개동(석남1,2,3동, 가좌1~4동)
- 이름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를 위한 설문

○ 설문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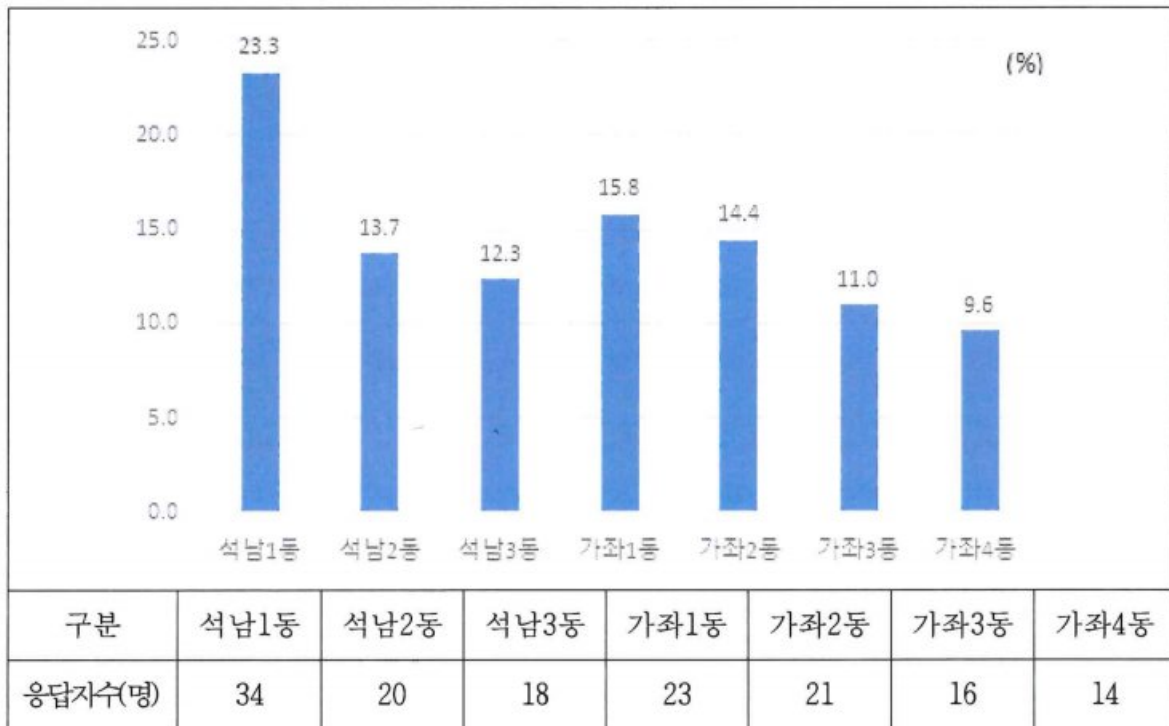
- 청라 외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전용수거용기(공동, 개별)에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후 문 앞에 두도록 되어있는데, △전용용기를 추가로 구매해야하는 점, △한번 음식물쓰레기를 담았던 용기를 다시 재사용하는 불쾌감, △용기 재사용으로 인해 누적되는 위생 문제, △문전 배출로 인한 거리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현 정책을 점검하고 주민의 필요를 파악하고자 함
- 설문 제목 :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태와 개선방안 조사
- 설문 내용 : 거주 형태에 따른 쓰레기 배출 실태, 주민의 불편도, 불편 원인, 배출 장소의 청결 및 유지 관리, 현 정책의 미비점,

개선 방안 등

○ 응답자 개요

- 거주지역 : 석남1동부터 가좌4동까지 총 7동 주민들에 대하여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146개의 응답을 확보함. 석남1동이 23.3%(34명)로 가장 많았으며, 가좌1동 15.8%(23명), 가좌2동 14.4%(21명), 석남2동 13.7%(20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현재 거주지역(N=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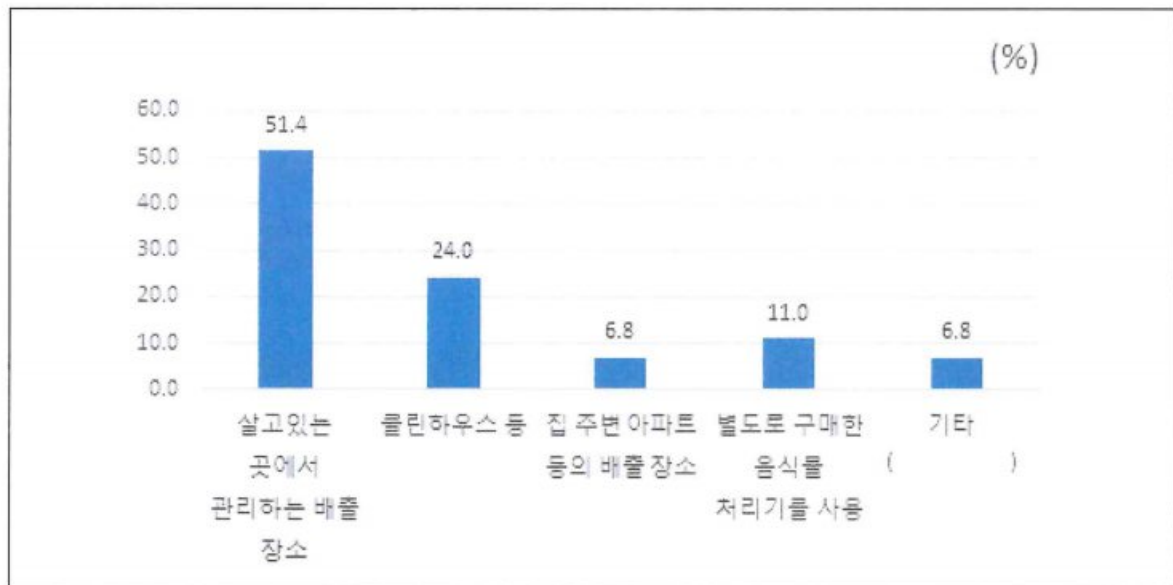


- 거주형태 : 응답자들의 현재 거주형태는 단독주택 32.9%(48명)로 가장 많으며, 아파트 31.5%(46명), 빌라 30.8%(45명), 오피스텔 2.1%(3명) 순으로 나타남
- 가구원 수 : 가구원 수는 3~4인 가구가 39.7%(5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인 가구 34.9%(51명) 등으로 나타남

○ 설문결과① 음식물 쓰레기 배출 현황

- 평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통에 담아 필증 부착 후 배출’ 이 43.3%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 도 40.1%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는 ‘살고있는 곳에서 관리하는 배출 장소’ 가 51.4%(75명)로 가장 많았으며, ‘집 근처 배출장소’ 가 24.0%(35명)로 나타남
- 그 외에는 ‘별도로 구매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사용 후 규정대로 배출’ 이 11.0%(16명)로 나타남
- 응답 결과, 대부분의 주민(75.3%)은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배출장소 혹은 집 근처 클린하우스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함

[그림]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장소(N=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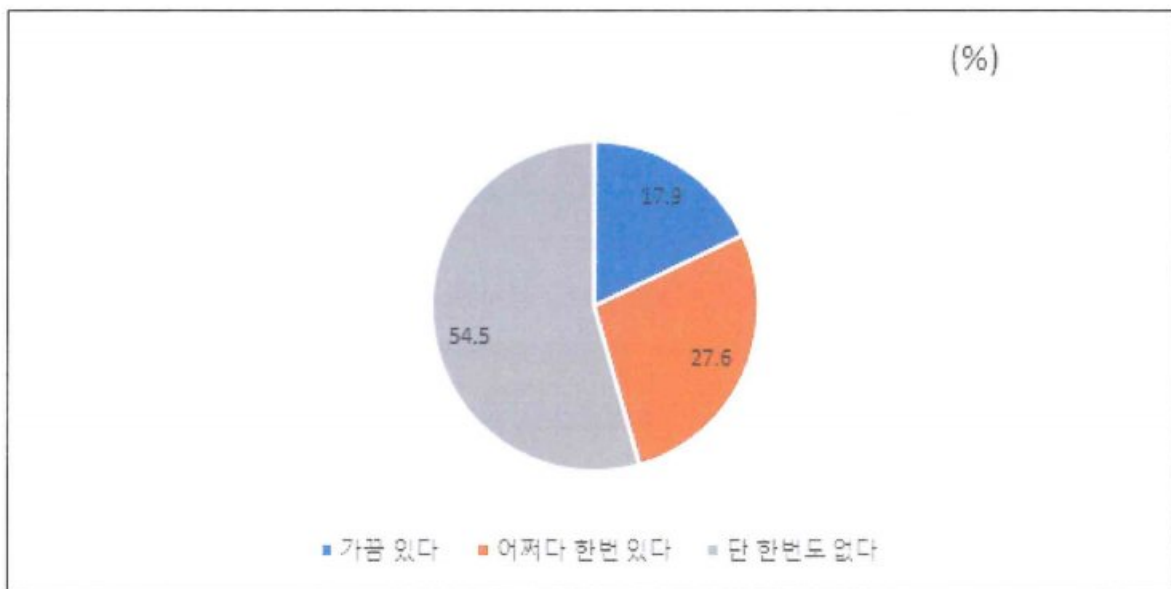
- 주민 중 50.0%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라고 응답함
- 번거롭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통의 관리가 번거로워서’ 가 3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필증을 구매해야 해서’가 24.0%, ‘너무 자주 관리해야 해서’가 13.5%로 나타남

○ 설문결과② 음식물쓰레기 배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약 45.5%의 구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그림] 음식물을 일반 폐기물과 같이 배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배출하지 않고 혼합 배출한 경험에 대해서 응답자의 38.6%는 ‘보관 중 악취 발생’, 16.8%는 ‘음식물 쓰레기 통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 15.8%는 ‘통을 채울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13.9%는 ‘배출 장소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를 행위의 이유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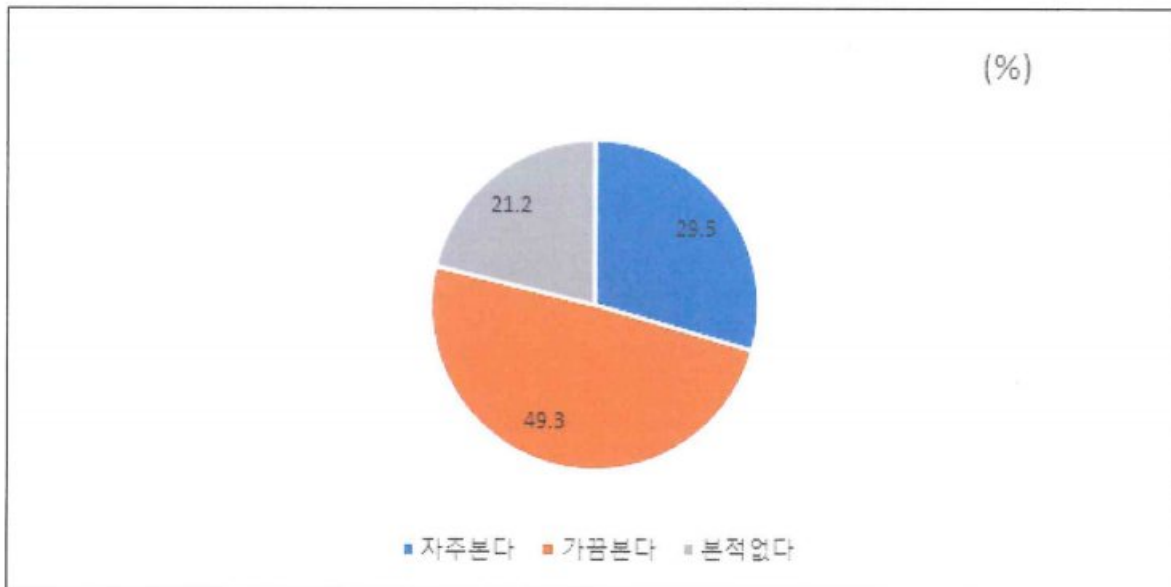
[표] 음식물을 일반 폐기물과 같이 배출한 이유

	이유	응답(%)
1순위	보관 중 악취가 발생해서	38.6
2순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관리가 번거로워서	16.8
3순위	수거용기를 채울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15.8
4순위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배출 장소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13.9
5순위	수거용기의 가격이 비싸서	4.0
6순위	필증을 구입하기 번거로워서	4.0

○ 설문결과③ 불법 배출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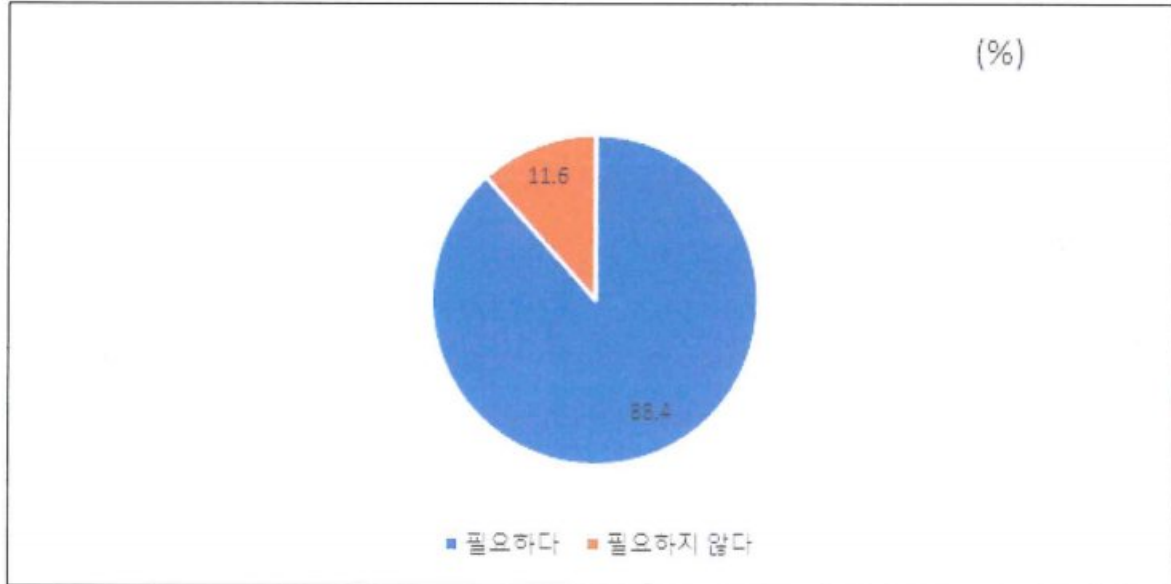
- 약 78.8%(115명)의 구민이, 불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그림]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담아 버리는 것을 본적 있는지



- 대부분의 구민(78.8%)이 불법적으로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을 목격하였음
- 이에 대해 약 88.4%의 구민(129명)이 음식물 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림]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결과



- 음식물 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구민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지 설문한 결과, 약 50.9%의 구민이 ‘CCTV 설치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속 방식

	방식	응답(%)
1순위	CCTV 설치 및 단속 강화	50.9
2순위	경고 스티커 부착 후 과태료 부과	24.5
3순위	공무원/환경미화원 순찰 강화	12.9
4순위	주민 신고제 운영	10.5

○ 설문결과④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정책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응답함

	필요 정책	응답(%)
1순위	집 가까운 곳에 폐기물 배출 장소 추가 설치	18.9
2순위	배출 장소의 위생 관리 강화(정기 세척 등)	16.7
3순위	무단 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강화	16.7
4순위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빈도 확대	16.0
5순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용	13.9
5순위	필증이 필요 없는 자동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 도입 (카드결제)	11.0
7순위	가구별 음식물 처리기 구매 비용 일부 지원	6.8

- 음식물쓰레기 전용 스마트 수거함이 생긴다면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 약 10.5%만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함
-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에는 ①냄새, 벌레 등 때문에 청결 유지가 어렵고 집중 단속이 필요함, ②가구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교육 필요, ③집 가까운 곳에 폐기물 배출장소 추가 설치, ④집중 단속 등이 있음

□ 민관 협력 현장조사활동

○ 개요

- 일시 : 2025. 9. 18. (목) 10:00 ~
- 장소 : 석남동 일대 클린하우스, 폐기물 배출장소 0개소
- 참석 :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한중, 유은희, 장문정), 인천서구청 소관 부서 직원 29명(자원순환과, 석남 1동, 석남 2동, 석남 3동, 가좌 1동, 가좌 2동, 가좌 3동), 의회사무국 직원 1명
- 내용 : ① 원도심 분리배출 실태를 소관 부서가 직접 확인하고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는 폐기물 유형과 원인을 파악
② 주택 유형별 분리배출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 기반 마련
③ 폐기물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 활동 및 실태 확인 결과 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선진 정책 시찰

○ 개요

- 일시 : 2025. 11. 17. (월) 10:00 ~ 16:00
- 장소 : 수원시 일원
- 참석 :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한중, 장문정, 유은희) 및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박상선, 김유진, 김은지), 기관 관계자 등
- 내용 : ① 자원순환역(수원공고 후문) 운영 구조 및 관리자 근무체계 확인
② 교동어울림센터 내 ‘재미샵(재:미샵)’ 운영현황 및 사례 조사

○ 방문 주요 내용

- 먼저, 자원순환역(수원공고 후문)이 야간이나 공휴일 등 무인시간 대 어떤 방식으로 공간이 관리되는지, CCTV 모니터링 및 조도 확보 수준,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 등을 확인함
- 재활용 품목별로 어떻게 구획이 나누어져 있는지, 표시가 명확한지, 배출 용기나 구획의 배치가 이용자에게 직관적인지, 다량 배출시 정리 방식도 함께 확인함
- 자원순환역 설치 후 주변 원룸, 다세대 주택가에서 불법 배출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주민 민원 변화 여부, 기존 골목 단위 불법 배출 문제 해결과의 연계 효과 등을 확인함
- 다음으로, 교동어울림센터 내 ‘재미샵(재:미샵)’ 운영현황 및 사례 조사함
- 재미샵 사례를 통해 폐플라스틱, 병뚜껑 등을 활용한 자원가치 재창출 및 지역 내 순환경제 활성화 기능 확인함
- 특히, 재미샵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센터 내 다른 프로그램과의 협력, 지역주민·학교·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방식 등을 조사함

- 주민이 가져온 자원(폐플라스틱, 병뚜껑 등)을 어떤 절차로 수집하는지, 포인트는 적립 방식(무게·품목 기준), 자원 수집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함

재미샵이란 마을 주민이 직접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팔달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함. 수원시 팔달구 교동어울림센터 1층에 위치함. 재미샵이라는 이름에는 ‘지구를 살리는 재미! 마을을 되살리는 재미! 자원을 되살리는 재미! 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는 재미!’ 라는 뜻을 가짐. 탄소중립과 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병뚜껑 20개 모아오기, 텀블러 일주일 사용 인증샷, 쓰레기 분리 배출하기 등 6가지 순환 미션을 달성하면 업사이클 도장을 증정하는 ‘자원순환 재미샵(#) 챌린지’ 도 추진하고 있음

<출처> "되살리는 재미가 있는 곳! 수원 교동어울림센터 1층 '재미샵', 수원뉴스



IV

연구활동비 · 용역비 사용내역

연구활동비(의정운영공통경비)

- 예산액: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 지출액: 금1,065,100원(금일백육만오천일백원)
 - 세부사용내역

연번	일자	사용내역	금액(원)	비고
1	2025.09.17.	1차 현장조사 활동을 위한 현수막 구매	19,800	
2	2025.09.18.	현장활동을 위한 집기 구매(종량제 봉투 등)	162,000	
3	2025.09.18.	현장활동에 따른 간담회	614,500	
4	2025.11.13.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현수막 구매	19,800	
5	2025.11.17.	수원시 자원순환 정책 시찰 간담회 간식비	27,000	
6	2025.11.17.	수원시 자원순환 정책 시찰을 위한 간담회	222,000	
합계			1,065,100	

V

주요성과 및 총평

- 주민 참여 기반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적 정당성 확보
 -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식, 불편 사항, 개선 요구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 응답자의 약 45.5%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배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가 수치화됨
 - 응답자의 39.6%가 전용 통 관리의 불편함, 78.8%가 불법 배출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함
 - 이는 기존의 행정자료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생활적 불편이 정책 자료로 축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추후 정책 개편, 조례 수정, 예산 반영 시 근거 기반 행정 적용 가능성 확대에 기여함

- 현장 조사 활동을 통한 폐기물 배출 실태 파악
 - 석남동 일대 클린하우스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악취·무단투기·위생관리 미흡 등 설문과 일치하는 문제를 확인함
 - 공공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 배출 환경 차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 도출
 - 이를 통해 지역 특성, 주택 유형별, 폐기물 유형별에 따른 차등형 폐기물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명확해짐

- 수원시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실행 가능한 정책모델 탐색
 - 수원시 팔달구 자원순환역 운영 체계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전담 인력 체계·시설 기반 행정 모델을 확인함
 - 자원순환역은 전담 관리체계, 표준화된 수거 방식, 거점형 운영 구조를 적용하여 인천서구형 관리 효율성 향상 기대됨

- 재미샵 사례를 통해 단순한 단속 외에도 주민참여형 순환 모델, 환경에 대한 교육, 보상 체계가 적용 가능성을 확보함
- 스마트 수거 시스템, 감량 인센티브, 교육 기반의 참여 유도 방식 등 인천서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 도출
- 이를 통해 향후 인천서구가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참여 및 순환 경제 기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시사함

□ 행정부서 간 협력을 통한 후속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자원순환과,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부서에 2025년 서구 각 동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실적 조사 자료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단속 현황 및 부과 실적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자 함
- 도새재생과에 자연 관련 지킴이, 어린이(초등학생) 대상 교육을 통한 현장학습 실행하도록 독려하였음. 이를 통해 단순히 수원시 선진 사례 방문에 그치지 않고 인천서구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이를 통해 단속 중심의 정책에서 운영방식·관리의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으며, 향후 조례 검토, 시범사업 설계, 예산 반영 논의의 기반을 확보하였음

“쓰레기봉투 직접 열어보니...” 서구의회 연구단체, 현장에서 드러난 심각한 분리배출 실태

석남동 강남시장 일대서 '서구 분리수거 정책 연구회' 현장조사
 “재활용 자원, 생활폐기물로 섞여 버려져...2026년 직매립 금지 앞두고 시급 과제”

김학현 기자 upipriend@naver.com

등록 2025.09.18 17:33:37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분리수거 정책 연구회」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9월 18일 오전 석남동 강남시장 일대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이한중 의원을 비롯해 장문정 의원, 유은희 의원, 서구 자원순환과장 및 관련 공무원, 지역 통장 등 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연구회는 단순히 주변 환경을 둘러보는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쓰레기봉투를 직접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이 확인한 결과,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캔, 종이류 등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뒤섞여 버려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됐다. 현장에서 수거된 폐기물 봉투 상당수는 분리배출 지침이 제

대로 지켜지지 않아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불필요하게 늘리고 있었다.



이한중 의원은 조사 후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크게 늘고 있음을 주민들과 함께 확인했다"며,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원도심 지역의 폐기물 배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한 장문정 의원은 "제도적 장치는 갖춰져 있지만,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보니 주민 인식 제고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교육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을 언급하며, "재활용 자원이 그대로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은 단순한 자원 낭비를 넘어 우리 지역의 중대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회가 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조사는 서구의회 의원들이 정책적 논의를 넘어 직접 발로 뛰며 실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구 분리수거 정책 연구회」는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리배출 취약 품목별 개선 방안 ▲주택 유형별 맞춤형 정책 ▲주민 인식 제고 프로그램 등을 담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의원들과 주민들이 직접 폐기물의 문제를 확인한 만큼, 정책 개선에 있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과 의회, 주민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정책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회 분리수거 정책 연구회, 수원시 자원순환 정책 벤치마킹

▲ 최상철 기자 © 승인 2025.11.19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분리수거 정책 연구회'가 지난 17일 수원시 일대를 방문해 자원순환 정책과 주민참여형 분리배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시찰에는 연구회 이한중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문정·유은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수원공업고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자원순환역을 방문해 품목별 분리배출 구획과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어 교동어울림센터 내 '재미샵(재:미샵)'을 방문해 폐플라스틱, 병뚜껑 등 생활자원 수거 방식 및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방식을 조사했다.

재미샵은 팔달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며, 제로웨이스트 제품 판매, 마을 기반 자원순환 활동, 다양한 환경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식과 마을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한중 의원은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미샵의 강점은 어린 세대가 직접 환경 문제를 경험하고,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라며 "단순한 홍보를 넘어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마이시마 소각장처럼 소각장을 놀이공간이나 관광지처럼 설계해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쓰레기 처리시설을 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서구 내 자원순환 관련 시설도 단순 처리 기능을 넘어 재미샵과 같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 체험공간, 지역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연구회는 이번 시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운영 노하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위한 인력 배치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③ 음식물쓰레기 배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7. 음식물을 일반 폐기물과 같이 배출한 적이 있으신가요?

- 가끔 있다 → 7-1번으로
- 어쩌다 한번 있다 → 7-1번으로
- 단 한번도 없다 → 8번으로

7-1. 음식물을 일반 폐기물과 같이 배출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 선택)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관리가 번거로워서
- 보관 중 악취가 발생해서
-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배출 장소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 수거용기를 채울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 수거용기의 가격이 비싸서
- 필증의 가격이 비싸서
- 필증을 구입하기 번거로워서
- 수거용기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 기타 ()

8.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담아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 자주 본다
- 가끔 본다
- 본 적 없다

9.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 → 9-1번으로
- 필요하지 않다 → 10번으로

9-1.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중복 선택 가능)

- CCTV 설치 및 단속 강화
- 주민 신고제 운영
- 경고 스티커 부착 후 과태료 부과
- 공무원/환경공무원 등 순찰 강화
- 기타 ()

④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10.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3개 선택)

- 음식물쓰레기 수거 빈도 확대
- 집 가까운 곳에 폐기물 배출 장소 추가 설치
-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사용
- 음식물쓰레기 배출 장소의 위생 관리 강화 (정기 세척 등)
- 무단 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강화
- 필증이 필요 없는 자동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스템 도입 (카드결제)
- 가구별 음식물 처리기 구매 비용 일부 지원
- 기타 ()

11. 만약 음식물쓰레기 전용 스마트 수거함(카드 태그 후 버리면 자동 계량을 통한 배출)이 생긴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적극 이용할 것 같다
- 사용해볼 의향이 있다
- 관심 없다

12. 음식물쓰레기 정책 개선을 위한 추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음식물쓰레기 정책 개선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